

# “숲은 순수하고 맑은 세계”

## ‘한국의 나무문화’ ‘산림문화론’ 등 숲 관련서 인기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숲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숲’ 관련도서들이 최근 잇따라 출간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숲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숲> <산림문화론> <숲으로 가는 길> <한국의 나무문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 등이 그것.

이 책들은 단순한 실용서적의 단계를 초월해 숲을 문화로 확장시키고 숲과 종교의 상관성도 조명하고 있는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숲 속의 문화 문화 속의 숲>(열화당)은 국내외 산림전문가를 비롯 철학자, 민속학자, 시인, 언론인 등 14명의 산림에 대한 진지한 견해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는 산림과 철학을 연결하는 역사적 단초가 된다며 불교와 숲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고타마 시달타의 출

가는 바로 산림으로의 입산(入山)을 의미하며 사바에서는 이를 수 없었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 할 수 있었다는 것. 고타마 시달타가 다른 곳이 아닌 산림속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부처를 이뤘던 것은 인간자신을 깨닫는 과정에서 산림의 가치가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자연 산림이 사람을 가장 순수한 자연상태로 이끌어 간다는 점과 그 산림의 자연력으로 해서 수행자가 가장 심오한 명상세계로 진입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래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는 ‘상징속에 나타난 나무와 숲’ 부분을 통해 불교와 숲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석가모니는 사라수 나무 밑에서 태어나고 열반에 들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도에서는 오늘날까지 사라수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인도에 있어 보리수나무는 브라만과 동등시되며 석가모니는 바로 그 나무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보리수

산속으로 들어간 것과 중국과 한국, 일본의 사람들이 산중에 자리한 것을 산림의 자연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영우교수(국민대)가 쓴 <산림문화론>(국민대출판부)은 산림문화 전반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전교

## 부처님 출가 산림과 철학 연결 입산은 ‘자연속 깨달음’ 의미

수행자들은 숲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전교수는 “단순히 생산적, 환경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숲은 인간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숲을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모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숲으로 가는 길>(현암사)은 우리 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숲을 탐사하기 형식으로 꾸며 숲을 찾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한국의 나무문화>(문예산책)는



민속, 풍습, 설화, 전설속에 나타나는 나무이야기를 통해 선인들의 삶을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다. 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현암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이방에 들어와 그 정서까지 한국화 한 우리 나무 1백가지를 선정해 칼라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해 자연과 문화의 보고인 숲에 대한 인식의 장을 넓히고 있다.

◇최근 서점가에 선보이고 있는 숲 관련서들은 인류문화의 보고인 숲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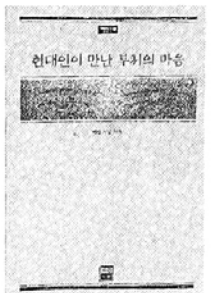
이은지 기자

## 깨달음 향한 실천 수행방법 제시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해원 지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본래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어리석음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지혜와 사랑을 완성하고 참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궁극적 목표와 그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예세이 형식의 불교인문서인 이 책에서 지은이 해원스님이 집필된 법의 세계(공사상), 치



우침 없음의 세계(중도실상), 평등의 세계(절대평등사상), 인연따라 생겨난 세계(인연생기), 나 없음의 세계(무아), 마음이 지어낸 세계(유심조) 등 깨달음을 위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깨달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행방법으로 좌선 수행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한국참선체조주도회에서 선체조 수련과 법회를 열고 있는 해원스님이 집필했다. <가람기회 7천5백원>

## 화제의 책

### 방방곡곡 암자 찾아 떠나는 구도기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지음

오늘날 대부분의 고상들이 관광지로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깊은 산중에 오롯이 남아 수도로서의 청정함을 지켜가고 있는 암자.

<암자로 가는 길>은 수행자들의 구도처로서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암자를 찾아 떠나는 구도여행기다.

소설가 정찬주씨가 95년 11월 부터 96년말까지 암자를 직접 돌아다니며 증인일 보에 연재했던 이 책은 조



계산 불일암, 지리산 상무주, 무등산 규봉암 등 우리나라 52곳의 암자에 대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생생한 울라 사진으로 담았다. 상봉사 다성암에서는 떨어지는 낙엽과 청량한 공기에 더욱 파란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암자를 찾아 떠나는 구도여행기다. 소설가 정찬주씨가 95년 11월 부터 96년말까지 암자를 직접 돌아다니며 증인일 보에 연재했던 이 책은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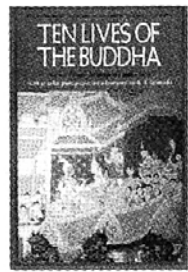
## 혜의 출판

### ‘부처님 십생담’

美 웨더힐社, 전생담중 10개 이야기 묶어

부처님 전생담을 새롭게 엮은 <부처님 십생담>(Ten Lives of the Buddha)이 출판됐다. C.로센필드(美)가 쓰고 웨더힐 출판사에서 출간한 <부처님 십생담>은 5백50개의 부처님 전생담 중 마지막 10개의 이야기를 묶은 것.

이 책의 저자 로센필드는 태국과 인도의 전래설화를 작품의 소재로 즐겨 선택하는 작가로 이번 책에는 E.웨레이가 직접 그린 32개의 삽화가 담겨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웨레이는 태국의 전통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수



차례 전시회를 가진 미국의 저명한 화가다. 구입처(www.weatherhill.com), ISBN은 '0-8348-0374-7'이다.

## 불교도서 전시회

5월 15-21일 부산역

불서(佛書)를 통한 포교확대를 꾀하는 ‘불교도서전시회’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역 1층 문화관에서 열린다. 부산불교신도회 주최 부산불교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외 불서와 시청각자료, 불교용품 8천여종을 주제별로 분류, 전시판매하게 된다. (051)464-2020

## 새로나온 책

▲고요한 숲 속의 연못=명상참선 수행을 통해 대중교화에 앞장섰던 태국 아잔차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 아잔차스님의 미국인 제자인 잭 콘필드와 폴 브로더비치가 엮은 이 책은 현재 인사동에서 위빠사나 명상센터를 운영중인 김영권씨가 번역했다. <고요한 소리 5천원>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십수년간 일선에서 청소년을 포교해 온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조달현사무국장이 듣고 체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모은 명언집. 부처님의 말씀과 여



러 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다. <여래 5천원>

▲중국고대사상의 세계=도서출판 살림이 펴낸 중국연구서 시리즈 중 하나. 공자, 묵자, 도가, 유가등 중국에서 출현한 사상의 종류와 이예따

라 이어지는 중국지성사의 흐름을 설하고 있다. <살림 1만8천원>

▲현대인을 위한 요가=요가의 이론과 철학체계, 수행방법과 효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요가입문서. 요가의 다양한 체위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체위를 히말라야 현지

요가수행자의 사진을 통해 상세하게 지도해 준다. 광주대학교 사회체육과 장우인교수가 집필했다. <서림 7천5백원>

▲팔공산 지리=경북지역의 남부지역인 팔공산 지리를 9개의 답사코스 로 제시하고 있다. 후종영 아래 공공한 사람들의 꿈을 담은 ‘김천, 성주’와 신라불교의 씨앗이 뿌려진 뒷밭인 ‘구미(산산)’, 영남인의 미소를 담은 고담스런 삼존석굴이 있는 ‘운주’와 갖바위로 오르는 발길과 영원을 담은 ‘팔공산’과 철곡, 청도, 달성, 영천, 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준다. <돌베개 1만5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립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3	마음 다스리는 법	김 정 민	홍 지
4	그가짓 살았으면 언제	학 립	여시아문
5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해 원	가람기회
6	살아있는 선	라즈니쉬	성 하
7	49세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8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9	도술전에서 만남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10	한국불교사	김 영 태	경 서 원

구입문의:(02)737-0695

# 石葉 哲牛 울사 「四分律 (60책)」 16권으로 번역, 완간!!

계율은 불법의 목숨입니다.

특히 사분율은 비구·비구니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부처님의 근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분율장 정신에서만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으며, 부처님의 혜택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직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온 누리에 두루 두루 빛나기를 발원하며, 石葉 哲牛 스님께서 지난 3년간 총 16권으로 번역, 완간하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고려대장경의 ‘四分律’ 부분만 원본 그대로 인정하여 최고급 韓紙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 1. 단행본

사분율 16권 (1집)

·번역: 石葉 哲牛 (영산출판원 울원장)  
·편역: 신국환  
·정가: 80,000원 (1집)

### 2. 영인본 (韓紙)

四分律 12책 (1집)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인  
·책크기: 가로 30cm, 세로 40cm  
·정가: 900,000원



### ◎ 계율관련

1. 律藏全書 (全 56권, 2,000,000원)
2. 四分律 (고려대장경 영인본, 韓紙, 900,000원)
3. 四分律 (全 16권, 哲牛 譯, 各권 5,000원)
4. 律藏研究 (平川 彰/박용길 譯, 40,000원)
5. 韓國佛敎戒律思想研究(1) (채인환, 50,000원)
6. 戒律學 논문집 (全 6권, 40,000원)
7. 沙彌律儀 (일타 번역/철우 譯, 5,300원)
8. 沙彌律儀 (일타 번역/철우 譯, 5,300원)
9. 四分比丘戒本 (운허 譯, 4,500원)
10. 四分比丘尼戒本 (慈雲 譯, 5,000원)
11. 戒律논문집 (中國, 韓간)
12. 大婆道比丘尼經 (慈雲 譯, 4,500원)
13. 菩薩戒目 (일타 譯, 1,500원)
14. 梵網經菩薩心地戒品講義鈔案 (10,000원)
15. 삼귀의의 계 수계 의식 (4,000원)
16. 범망경보살계 포살본 (2,000원)
17. 보살계본사기 (원호/석성우 譯, 韓간)
18. 사미율의 중주 (철우 譯, 韓간)
19. 문수사리보살 최상승 무생계경 (도일 번역, 韓간)
20. 도선율사 정성계관법 (지은 번역, 韓간)
21. 250계의 연구 (平川 彰 著/혜승 譯, 韓간)
22. 뿌리 없는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지은 학술논문집, 韓간)

### ◎ 일반

1. 마음의 비밀 1 (星雲大師 법어집/依恩 譯, 6,000원)
2. 마음의 비밀 2 (星雲大師 법어집/이인옥 譯, 6,000원)
3. 상당범어 1 (석성우·김규대 譯, 4,200원)
4. 상당범어 2 (석성우·김규대 譯, 4,200원)
5. 영가천축범어 (석성우·김규대 譯, 15,000원)
6. 푸른 산울림 (哲牛 지음, 4,500원)
7. 맑은 바람 불 스승거기네 (哲牛 지음, 4,500원)
8. 마음의 향기 (석성우 지음, 4,000원)
9. 태고 (석성우 지음, 6,000원)
10. 대양처럼 솟아나소서 (석성우 지음, 4,000원)
11. 화와 禪 (석성우 지음, 7,500원)
12. 열반사상 (석성우 譯, 韓간)
13. 빈이사상 (석성우 譯, 韓간)
14. 대원지정정찰산악업보경 (4,000원)
15. 一百五十講佛頌 (운허 譯, 1,500원)
16. 地藏菩薩本願經 (한자, 5,000원)
17. 地藏經 (한글, 5,000원)
18. 정수열조경 (묘한 譯, 4,000원)
19. 지장보살窟佛 (2,000원)
20. 아가미 (김규대 譯, 8,000원)
21. 깨끗해 될 마음 밝기가 대낮같이 (김규대 譯, 3,500원)
22. 김홍희복은 이름에 달려 있다 (조영남, 5,700원)
23. 禪詩총서 1 (조영남, 15,000원)
24. 극락세계유람기 (4,500원)
25. 흰 연꽃 피는 소리 (구본일, 4,000원)

### ◎ 土房詩選

1. 꿈꾸는 黃砂 (전병희, 2,500원)
2. 갈 수 있을까 (脫 후반기 동인, 2,500원)
3. 四行詩 三百首 (박희진, 5,700원)
4. 하늘아래 작은집 (이상범, 2,500원)
5. 마음비워 좋은날 (석성우, 2,500원)
6. 고요를 읊어 (최성국, 2,800원)
7. 무한대의 사분율표 (김충호, 2,500원)
8. 통영별곡 (미국인, 3,500원)
9. 이상한 섬 (김영희, 3,000원)
10. 고요詩法 (이상범, 3,500원)
11. 하늘 맑은 날 (석성우, 3,500원)
12. 行間의 비람 (김영희, 3,500원)
13. 누군가 또 말이 되는 밤 (홍석하, 4,000원)
14. 禪詩 (석성우, 4,000원)

### ◎ 한국시조選

1. 김상헌, 韓간
2. 오동일 그늘에 서서 (정원영, 3,000원)
3. 紫霞山舍 이후 (리태극, 3,500원)
4. 오두막집원 (이상범, 5,000원)
5. 襄仲孫 생각 (김충, 3,500원)
6. 아침 山行 (정재익, 3,500원)
7. 鏡河의 가을소식 (박옥근, 3,500원)
8. 미리내 이야기 (김해식, 3,500원)
9. 달빛 배인 쪽물치마 (안윤환, 3,500원)
10. 이문동 所見 (정신재, 3,500원)
11. 허리춤에 세월 차고 (김대현, 3,500원)
12. 가을꽃 여울 타고 (이정자, 4,000원)
13. 적막을 주는 새 (김삼현, 4,000원)
14. 신문을 듣고 (박희서, 4,000원)
15. 風蕭 (김기호, 30,000원)
16. 연등 들고 서는 바다 (장석환, 4,000원)